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전 요 섭(02-2100-1720)	담 당 자	이지현 사무관(02-2100-1740) 정연수 사무관(02-2100-1787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제 목 :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총회 참석 결과

※ **Financial Action Task Force** : '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·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구로, 美·中·日 등 37개국(한국은 '09.10월 가입)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, 걸프협력회의(Gulf Cooperation Council) 등 39개 회원

※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5차 총회('21.10.19~10.21)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참고로,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◇ FATF 총회 개최 개요
-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제32기 제5차 총회가 '21.10.19(화) ~ '21.10.21(목)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
- ◇ 주요 논의 내용
- ① 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
 - *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
 - ② 국경간 결제(Cross-border payment) 활성화
 - * 국경간 결제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관련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
 - ③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강화
 - * 국제기준, 주석서, 용어사전의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 승인
 -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 - * (이란·북한)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/ (보츠와나·모리셔스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/ (요르단·말리·터키)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
 - ⑤ 기타 논의사항
 - * FATF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완화 1단계 점검보고서 및 자금세탁 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, 환경범죄 관련 FATF용어사전 개정 등

【논의결과①】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

□ FATF는 '19.6월 가상자산(VA)/가상자산사업자(VASPs)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*를 발표하고,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동 지침서를 개정하였습니다.

* VA/VASPs에 대해서도 자금세탁/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,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'위험기반접근법'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

□ 개정된 지침서는 ①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, ②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·완화방안, ③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·등록, ④트래블룰, ⑤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○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¹⁾, P2P, NFT²⁾, De-Fi³⁾를 포함하여 가상자산/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* 1)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

2) 대체불가능토큰(Non-fungible token) :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

3) 탈중앙화금융(Decentralised finance) :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

□ FATF는 개정 지침서를 10.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.

【논의결과②】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

□ 국경간 결제(Cross-border payment)의 효율성 개선은 G20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, G20는 '20년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.

○ FATF는 동 로드맵의 일환으로,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(AML/CFT) 관련 법·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.

- 해당 보고서는 AML/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,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하며,
 -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, 표적화된 금융제재(targeted financial sanction) 스크리닝,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,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FATF는 국경간 결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으며,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0.22일 발표하였습니다.

【논의결과③】 실소유자에 대한 FATF 국제기준 강화

- FATF는 판도라 문건*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* '21.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(ICIJ)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

-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,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*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.

* ①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(multi-pronged approach) 활용, ②무기명주식 및 명의 관계(nominee arrangements)의 악용방지 방법, ③위험기반접근법, ④권한당국의 정확하고 적절한, 최신 실소유자 정보에의 접근 등

【논의결과④】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

-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,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'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'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'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.

- 이번 총회 결과, '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'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,
- 기존 '강화된 관찰대상 국가'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, 2개국(보츠와나, 모리셔스)은 제외, 3개국(요르단, 말리, 터키)은 '강화된 관찰대상 국가'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>

종 류		내 용	국 가
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	대응조치 (Counter-measure)	사실상 거래중단,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	이란 북한
	강화된 고객확인 (Enhanced due diligence)	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	없음
②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		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	23개국*

* (현행유지) 알바니아, 바베이도스, 부르키나파소, 캄보디아, 케이만군도, 아이티, 자메이카, 몰타, 모로코, 미얀마, 니카라과, 파키스탄, 파나마, 필리핀, 세네갈, 남수단, 시리아, 우간다, 예멘, 짐바브웨
(신규추가) 요르단, 말리, 터키

【논의결과⑥】 기타 논의사항

- 그 외에 FATF 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1단계 점검보고서 채택(10.22 발표),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및 요약본 발표 승인(10.27 발표예정), 환경범죄 대표예시를 추가하는 FATF 용어사전의 개정을 승인 하였습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지착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</p>	 <p>합병관리청 콜센터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□ **설립 목적**

- UN 협약*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로서 '89년 설립
 - 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- 마약자금('89)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('96), 테러자금조달('01),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

□ **주요 기능**

-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,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
-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
-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, 대응수단 개발 등

□ **운영 방식**

- 총회(Plenary),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, 5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


□ **회원 구성**

- 정회원(37개국+2기구), 준회원(9개 지역기구), 옵저버로 구성
 -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*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
- 우리나라는 '98년 아태지역기구*(APG), '09년 FATF 정회원 가입
 - *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(9개국 + APEC·ADB 등 28개 국제기구)